

닭고기 수출규격화 방안 국제 심포지엄 개최

대형닭고기 생산을 위한 현장 연찬회도 겸해



본회는 육계산업을 한단계 업그레이드시키고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코자 지난 9월 15일 김제시청 대강당에서 '닭고기 수출규격화 방안'을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대형육계를 생산하는 농가에서 현장 연찬회도 가졌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1.5kg 정도의 소형계 위주로 육계를 사육하고 있어서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부분육 생산이 어렵다. 또한 한반도 주변에는 세계에서 닭고기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러시아 및 일본, 중국, 홍콩 등이 있으나 삼계탕 이외에는 수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경영비를 절감하기 위해 정부에서도 대형육계 생산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에 국립축산과학원에서는 대형닭고기를 생산하기 위하여 1993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10년간에 걸쳐 연구를 수행했으며 33일 정도에 1.5kg로 출하하는 것을 몇 가지만 바꾸고 1주일 정도만 더 키우면 2.7kg 정도의 왕닭을 생산할 수 있다.

품질 측면에서는 닭고기 도체이상(창상, 멍, 외상

등)이 사육, 출하, 도계 등 전단계에서 매년 5~20% 정도 발생하여 연간 300억 이상의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고 있다.

이에 본회는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과 공동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년 전부터 연구를 수행하여 왔고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대응 방향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한국, 일본, 미국, 영국의 육계 전문가들이 각국의 대형닭고기 생산, 유통과 도체이상 감소방안에 대하여 소개하고 닭고기 수출규격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서성배 회장은 "이미 선진국의 경우 대형닭고기 위주로 생산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가금육 등 부분육의 수요를 충족하고 비정상 닭고기의 품질을 높여 닭고기 수출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도 대형닭 생산이 필요하다"며 "이번 국제 심포지엄을 통해서 우리나라 대형육계 생산 방안과 육계의 사육, 출하, 수송과정에서 발생하는 닭고기 도체이상 감소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육계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세미나 개최

주제발표 외 건강관련 특강도 마련

본회에서는 육계사육 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육계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매년 전국의 육계사육 농가들을 대상으로 사양 및 질병 세미나를 개최해오고 있다.

올해 개최되는 사양 및 질병 세미나는 오는 10월 8일(금) 오후 1시 30분부터 대전 유성 소재 흥인호텔 별관 21층 스카이하일에서 육계산업 발전 대

책, 육계농가 소득 2배 확대 전략, 육계 면역억제 성 질병의 최신 해법 등에 대한 내용이 발표된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올해 본회 가입한 농가회원 에 대한 환영의 의미로 개최되는 것으로 기존 강의 형식에서 탈피, 이용영 태평양교육센터 전문강사의 '젊음과 건강을 향한 무한도전'이라는 주제로 특강도 있을 예정이다.

한편 이번 세미나에 참석한 농장주들에게는 세미나 종료 후 교육 이수 수료증을 발급할 계획이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저녁식사가 제공된다.

■ 문의 : (031)707-5722~4

■ 홈페이지 : www.chicken.or.kr

축산물 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관련

책임수의사 기준 업무량 조정 유예 건의

본회에서는 축산물 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중 '닭·오리 도축장 책임수의사의 1일 검사 업무량 조정'과 관련하여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책임수의사의 기준 업무 증가분을 현행 4만수에서 2만수로 조정하는 것은 도계장의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무리한 조정이라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도축장은 3D 업종으로 분류돼 수의사들이 취업을 기피하는 업종으로 책임수의사의 채용이 쉽지 않은 데다가 임금 증가에 따른 원가 상승으로 기업의 부담이 가중돼 국제 경쟁력 상실로 이어질 것이다.

특히 검사 업무가 충실하게 이루어져 축산물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이견이 없으나 검

사시설의 개·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검사원의 숫자만 무리하게 증원할 경우 회사 조직 운영에도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본회에서는 도계라인의 개·보수를 통해 책임수의사의 검사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2014년 이후로 책임수의사의 기준 업무량 조정을 유예해 줄 것을 농림수산물부에 요청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입법예고

회원사에 의견 수렴

농림수산물부에서는 가축전염병 발생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절차 및 방법, 살처분한 가축의 보상금 상한액 축소, 도축장 등에 있는 생산물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가축방역협의회의 기능에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추가, 제2종가축전염병에 낭충봉아부패병 추가, 살처분을 명하는 제2종가축전염병에 광견병, 사슴만성소모성질병 및 스크래피 추가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수수료의 납부방법에 신용카드 추가, 수수료 면제대상 확대, 정밀검사 수수료 대상에 광견병 및 말진염성동맥염 추가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혈청검사 및 검역 등에 관한 수수료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와 관련 본회는 동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10월 8일까지 협회로 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회원사에 공문 발송했다.

제3차 유통위원회 개최

단위가격 표시제도에 대해 논의

본회는 지난 9월 10일 천안의 한 음식점에서 제3차 유통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유통거래처에 대한 단위가격 표시제도 적용과 관련 업계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진척시켜 나가기로 했다.

한편 현재 위원장이 공석인 만큼 (주)마니커 김종묵 이사를 임시위원장으로 하고, 내년 초에 다시 위원장을 선출키로 했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안)

책임수의사 추가 관련 의견 개진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안) 중 20,000수당 책임수의사를 추가토록 한 것과 관련하여 본회는 현재 국내 도계장 운영능력(시설 포함)을 감안할 때 책임수의사의 증원만으로는 효율적인 검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며, 특히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도계라인 스피드 조절을 비롯 생산물량 조절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지나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회는 지난 9월 13일 공문을 통해 농림수산물식품부에 도계 라인 개선 및 디바이더 설치 및 검사 공간 확보 등 정상적인 검사가 가능하도록 시설 인프라 구축이 선행된 이후로 시행시기를 유예해 줄 것을 요청했다.

조류인플루엔자(A) 차단방역 철저 알림

회원사에 공문 발송 당부

최근 전남 나주시 장성군 및 강원도 강릉시에서 A 의심축이 잇따라 신고된 바, A 차단방역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어 농림수산물식품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A 차단방역 추진사항을 각 시·도를 비롯 방역본부, 생산자단체 등에 시달렸다.

이에 본회는 공문을 통해 회원사에 A 차단방역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다 음 -

□ 시·도

- 농장간 방문 자제 및 부득이한 농장 출입시 소독 등 철저한 방역조치 교육·홍보
- 외국 방문 근로자 등에 대한 교육 및 농가 예찰 강화
- 도축장, 사료공장, 분변처리장 및 운반차량의 농가출입시 사람 및 차량의 소독철저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 명절기간 중 초동방역팀 출동태세 구축

□ 닭·오리 생산자단체협회

- A 원인체가 농가에 유입되지 않도록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해 출입자 통제 및 소독강화 등 차단방역을 강화토록 SMS 문자 집중 홍보
- A 소독강화 등 차단방역에 대한 홈페이지 POP-UP창 상시 게재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 수입 가금/가금육 및 국내 양계농가에 대한 검사 철저 